



가나안 이야기

「 약속의 땅을 향한 행복한 동행 」

다비드 • 하다스 • 담희 • 단아 • 도하 • 다온

샬롬! 프라하에서 문안드립니다. 무더운 여름 어떻게 보내고 계신지요? 한국은 장마에 태풍까지 예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위는 한층 껴였겠지만 비와 강풍으로 인한 피해가 염려됩니다. 아무쪼록 이 기간에 가정과 교회와 생업 터 위에 아버지의 보호하심 함께하시길 기도합니다. 저희들이 거주하고 있는 체코에도 여름이 찾아왔습니다. 따뜻한 날씨 덕분에 옷차림도 가벼워졌습니다. 집 주변으로 산책도 나가고 개울에 발을 담구며 아이들은 마냥 즐거워합니다. 해도 많이 길어졌습니다. 유럽의 여름은 낮이 길고 밤이 짧습니다. 요즘 체코의 일출 시간이 밤 10시쯤이라 하루가 참 길게 느껴집니다. 해가 짧았던 겨울과는 달리 여름의 시간은 삶의 여유를 가져다줍니다. 이 여름을 가족들과 함께 자연을 벗 삼아 모처럼 주어진 특별한 시간을 보내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이러한 잔잔한 여유로움 속에 떠오르는 마음의 부담과 눈앞의 놓인 과제들 사이에서 고민과 긴장을 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긴장과 여유로운 삶 사이에서 잘 보내는 방법을 터득할 수 있도록 기도해주시시오. 더불어 지난 시간 저희들의 삶을 나눕니다.

■ 메노라에 새긴 이름 '예슈아'

요즘 프라하 시내 중심가에서는 벽돌을 사서 원하는 그림을 그려 전시할 수 있는 부스가 열려있습니다. 세계 여러 나라 사람들의 바람과 메시지를 담은 벽돌그림이 층층이 쌓여 전시되어 있습니다. 가족과 함께 전도하는 날이었는데, 집에서 미리 스케치 해왔던 그림을 아이들과 함께 그려서 전시했습니다. 메노라 촛대를 그리고 그 위에 히브리어로 '예슈아'라고 쓴 그림이었습니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자는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요한복음1:9-10). 그곳을 오가는 수많은 사람들, 특별히 유대인들의 발걸음과 시선이 그림 앞에 멈춰 서서 예수님을 생각하는 시간이 되길, 세상의 빛이 되신 예수님을 깨닫고 그 사람, 영혼의 빛이 되어주시길 간절히 기도하며 정성을 다해 그렸습니다. 바라기는 사도행전 9장에서 보논바와 같이 사울이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밝은 빛 가운데 만난 것처럼 이 거리를 지나가는 수많은 유대인들 가운데 메노라에 새겨진 예슈아의 생명 빛을 만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저희들의 소망은 오늘날 유대인들 가운데 아직 사울의 상태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많지만 그들 가운데 다메섹 사건이 허락된다면 바울과 같은 사람이 되어 복음전도에 있어 큰 역할을 감당할 것이라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소망 안에서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 하다스의 홈스쿨링 이야기

이스라엘을 떠나 이곳 체코로 온지도 이제 8개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지금껏 그랬듯이 열심히 놀고 있습니다. 체코생활 초반에는 읽을 책이나 학습교재를 구해보려고 고민하고 뭐든 배우게 해주고 싶어서 애써봤지만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이런 어려움으로 부모, 특히 엄마의 마음이 힘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아침, 가정예배 말씀들을 들으며 'It's enough.',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에 비해 물가가 저렴하니 먹고 싶다는 거 큰 고민하지 않고 사줄 수 있고, 공원, 놀이터 다니며 실컷 놀게 해주고, 아프지 않고 건강하니 이것으로 충분히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배움에 대한 욕구는 이스라엘에 돌아가면 하나씩 채우기로 하고, 지금은 날마다 행복과 감사를 고백하는 아이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찌 보면 부족할 수도 있겠지만 유년시절의 이 행복과 감사가 아이들의 마음 발을 옥토로 만들어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열매들이 풍성히 열리기를 기도합니다.

■ 이스라엘을 그리워하며

저희가 거주하고 있는 프라하 집은 공항 근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로 해서 하루에도 수십 차례 비행기가 이륙하고 착륙하는 모습을 집 앞에서 볼 수 있습니다. 때문에 보통 평생을 살아도 다 못 볼 세계 각국의 비행기들이 지나갑니다. 이 모습을 함께 바라보는 가족들이 유독 특정 비행기가 지나갈 때마다 환호하며 감탄하는데 그것은 바로 '대한항공'과 이스라엘 '엘알' 항공 비행기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스라엘 비행기를 바라볼 때마다 가족 모두 "저 비행기 타고 이스라엘 가고 싶다"고 이구동성으로 말합니다. 아이들은 이스라엘에 두고 온 책과 장난감에 대한 그리움과 그 땅에서 지내던 추억 때문인 것 같습니다. 저 역시 이스라엘로 향하는 저 비행기에 몸을 신을 날이 속히 오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10월 달이 되면 이스라엘을 떠나 온지도 1년이 됩니다. 이스라엘 미국 팀에서 전하는 정보에 의하면 저희가 이스라엘을 떠난지 1년이 되는 시점부터 비자업무를 진행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 과정이 빠르면 2~3주 늦으면 2~3개월의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와 가족들은 하루라도 빨리 현장으로 달려가고 싶은 마음입니다. 이후에 진행될 모든 과정 속에서 아버지의 특별한 도우심과 역사하심을 위해 아뢰어 주십시오.



가족 살아가는 이야기



프라하의 여름



세상의 빛 예수



아이들과 함께 빛을 비추다



프라하 이스라엘 대사관



집 앞에서 바라보는 하늘



반가운 분들의 방문

「 기도제목 」

Jewish Cluster Ministry Team

1. 현재 진행 중에 있는 종교비자 업무가 원활하게 진행되어 속히 현장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2. 현장에서 수고하고 있는 유대인 사역팀(JCMT)와 베두원 사역팀을 축복하시고 팀원들이 영육 간에 강건할 수 있도록
3. 요압 아저씨와 야곱 그리고 이브라힘 가정이 예수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인정하고 고백할 수 있도록
4. 체코의 전도 대상자들과의 좋은 관계와 교제 그리고 그들(주자나&구용준부부)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5. I*B와의 협력사역과 그 속에서 주어진 본인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무엇보다 언어에 진보가 있도록

※ 여러분의 기도제목을 보내주시면 이곳에서 저희도 함께 중보 하겠습니다.



「 후원정보 」

「 연락처 」

- 일반헌금: 다비드/하다스(담희,단아,도하,다운)
- KEB 하나은행 : 181-04-01159-983
- 예금주: 침*해*선(정재석) / TEL : 02-3775-4471

- 목적헌금: 타마르/코리엘 프로젝트
- KEB 하나은행 : 990-007955-919
- 예금주: 침*해*선(정재석) / TEL : 02-3775-4471

- 1) 재정담당 : 최은섭 (010-5334-7856),
E-MAIL: 0903ces@naver.com
- 2) 문서담당 : 박은성 (010-3745-2025),
E-MAIL: mindlle-1@hanmail.net

- ※ 주 소 :
Rev. JAESEUK JUNG
K Prelátům 60, Předí Kopanina – Praha 6 [734373],
Czech Republic

- ※ 체코 연락처 : +420 774 567 658
- 집전화 : 070-8632-0432
- E-MAIL: korielpo@gmail.com